

# 2003년 발명진흥 유관단체 워크숍 개최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발명진흥사업에 대한 유관단체의 역할을 강조, 올 한 해 발명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함께 지난해 각 발명유관단체의 사업과 주관사업 방안 등을 평가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해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충남 서산의 안면도에서 특허청 발명정책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학교발명협회 관계자 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 함께 자리한 하동만 특허청장은 '오늘과 같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발명유관단체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성립하고 앞으로도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발명계에 효율적인 체제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많은 발명진흥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번 한 해 동안의 발명진흥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최종협 특허청 발명정책과장의 특강이 있었으며 사업화지원, 학교 발명, 여성 발명, 지방 발명 등의 각 분야별 분임토의를 통해 유관단체의 효율적이고 친화적인 발명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 이번에 개최된 '2003년 발명진흥 유관단체 워크숍'은 발명유관단체가 처음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어 더 뜻깊었다.

워크숍을 주관한 한국발명진흥회 민경탁 부회장은 '발명진흥을 위해 힘쓰는 많은 이들이 함께 모임으로써 더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것 같다'며 '내년부터 이와 같은 자리를 자주 마련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발명유관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최초의 자리이기도 하여 함께 참여한 이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 한국인이 중국에서 '제2의 종이혁명' 일으키다

AD 105년 채륜이 종이를 발명한 중국에서 한국인이 옥수수대로 펄프를 만들어 종이를 생산하는 '제2의 종이혁명'을 이룩했다. 주식회사 CP&P(Cornpulp & Paper·대표 박종봉)는 지난해 12월 9일 중국 라오닝성 카이웬시 인민정부와 옥수수대 펄프·제지 공장 설립을 위한 합동 조인식을 가졌다.

CP&P는 지난달 중국 선양(沈陽)화공집단 카이웬지업 유한공사에서 옥수수대를 이용해 펄프 및 제지 시험생산에 들어가 종이 20톤을 성공적으로 생산했다. 시험 생산된 이 제품은 전문가들로부터 필기, 복사지, 신문용지 등으로 손색이 없으며 목재펄프 대체재원으로 상품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환경전문가들로부터도 인류의 귀중한 산소원인 나무를 보호하면서 종이를 생산하게 돼 환영한다는 찬사를 받았다.

CP&P는 1999년부터 옥수수대 펄프연구에 돌입, 지난해 4월 미국 농무성 임산물연구소(FPL)로부터 목재펄프의 대체 펄프로서 경제 및 사용가치의 성공을 인증 받고 한국에서 '옥수수대를 이용한 펄프의 제조(특허 제0324487

호)' 특허를 획득하는 한편 미국, 일본 등 세계 14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목재펄프의 대체재원으로 벗짚, 갈대, 사탕수수, 대나무, 아마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고 옥수수대를 이용한 대체 펄프연구도 있었지만 수율(원자재에서 얻을 수 있는 예상량과 획득량의 비율)이 낮아 경제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CP&P측은 4년 동안 각고 끝에 수율을 40~45%까지 높여 대체 펄프로서 상품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옥수수대 펄프연구에는 공주대 화학과 유해일, 강원대 제지공학과 원종명, 성균관대 고분자화학과 장도훈 박사,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박종문 교수 등이 주도했다.

펄프생산량은 세계적으로 18억톤이며 국내 제지 산업 시장규모도 9조원에 달해 이번 옥수수대 펄프 개발 성공으로 제지업계는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보시라이 라오닝성 성장은 '경내에 무진장한 옥수수대를 이용, 수익을 창출하고 유휴 노동력도 이용하게 됐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LG전선 이현구 연구원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

LG전선(www.lgcable.co.kr / 대표 한동규)은 자사 기계연구소 냉동공조그룹 이현구 팀장(37)이 세계 최고 권위의 인명사전 '마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의 과학·기술 인명사전 2003~2004년도 판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랜 전통과 권위를 가진 '마퀴스 후즈후'의 과학·기술 인명사전은 2년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을 추가로 등재하고 있으며 현재 3만여명의 과학자들이 등재되어 있다.

이현구 팀장은 지난 2000년부터 약 10여편의 학회 발표 활동과 3건의 특허 등록, 2001년 신냉매용 터보냉동기의 국내 최초 개발 및 장영실상 수상 등 활발한 연구 실적을 보여 이 사전에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팀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기계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곧바로 LG전선에 입사, 1999년부터 오존층보존을 위한 신냉매용 터보냉동기의 핵심부품인 임펠러의 설계를 담당해왔다.

LG전선 관계자는 '이 분야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소수업체만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 장벽을 뚫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팀장의 주도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 지방 특허업무토털서비스개시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지난해 12월 3일 지방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각 지역에 설치, 운영 중인 특허정보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지방지식재산센터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에 설치된 특허정보지원센터는 지역상공회의소 산하 15곳과 발명진흥회 산하 3곳, 특허넷 시범대학 7곳 등 모두 30개소에 이른다.

지방지식재산센터는 종전 특허정보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특허정보 서비스 외에 기술개발단계부터 권리출원, 사업화까지 지식재산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발명진흥회와 지방자치단체, 대학과 유기적인 특허협력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방지식재산센터의 종합서비스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중소기업과 개인발명가, 대학 등이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특허 서비스를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품질이 보장된 한국발명진흥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국내 우수기업에서 최고의 품질과 제품성이 인정되는 오직 참숯에서만 부여되는 인증제도입니다.

Charcoal(숯)+carbon(탄소)+나(我)의 합성어로 '나'는 '나'를 뜻한다. 즉, 탄소의 결정체인 '숯'에 있는 수많은 효능이 사용되는 고객과 한몫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 숯의 신비 = Carbona 카보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무턱대고 굽지마십시오!**

카보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산되므로 건강에 좋습니다  
 카보나는, 연기가 없고 냄새를 제거하므로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카보나는, 고기맛을 좋게하고 사용후 불판을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여과작용 · 탈취작용 · 습도조절작용 · 해독작용 · 정화작용 ·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산 · 열역순환

카보나는 천연 참숯을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www.isdigital.co.kr](http://www.isdigital.co.kr)

**ISDigital**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9-8호  
 TEL.(02)567-8080 FAX.(02)539-4600

## 2003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신기술과 우수특허제품이 한자리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 '2003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에서 고건 국무총리,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하동만 특허청장, 박광태 한국발명진흥회장,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상 등 총 1백8개 발명품에 대해 시상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오칠환, 문중섭, 김민기 교수 등 교수진 3명이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이들이 개발한 발명품은 '입체적 형태 및 색채 분석을 위한 표면상태 측정 장치와 그 방법'으로 의학 분야에서 신체의 입체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진단방법이다. 국무총리 상에는 '방향성 캐스터를 구비한 스케이트보드'를 출품한 ㈜테코리(대표 송덕용)와 '자동차용 접철식 스노우체인'을 출품한 ㈜에스비디지탈(대표 박규한)이 선정됐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은 매년 신기술인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난해에는 기계금속·생활용품·전기전자 등 8개 분야 1백23개 업체에서 1백60점의 우수 발명품이 선정되어 같은달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전시되었다.



▲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성대하게 열린 '2003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개막식에 참가한 인사들.

특히 이번 전시품에는 '스프레시 미니소화기(나라스시스템즈)', '휴대용 금융입출금기(뉴신도판매)', '전동식 칠판 지우개(SMC코리아)', '바지형 침낭(윤정임)', '음용컵 자동세척장치(하트킨)', '휴대용 다리미(대용무역)' 등 이색 발명품이 대거 포함되어 일반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번 대전에서는 우수특허기술의 전시 및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기술장터(IP-MART)'가 설치됨에 따라 패넬을 이용한 전시뿐만 아니라 터치스크린을 통한 동영상과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참관인들이 손쉽게 발명품을 접할 수 있는 발명의 장을 마련하였다.



▲ 이번 '2003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에서 '입체적 형태 및 색채 분석을 위한 표면상태 측정장치 및 그 방법'을 통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고려대학교 오칠환 교수가 자신의 기술을 내빈들께 설명하고 있다.

## 과오납 특허수수료 반환 시스템 개선

특허청에서는 수수료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수수료 반환절차와 관련 시스템을 크게 개선하였다.

특허수수료는 민원인이 적정금액보다 많이 납부하는 경우(과오납), 심사 도중 절차가 중단된 경우(무효처분, 불수리처분)에 반환되는데 '02년도의 경우 1만4천2백53건(약 12억원)에 이르는 반환대상 중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8천5백43건(약 6억원)은 민원인이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민원인들이 반환금을 쉽게 찾아가도록 반환신청 절차를 더욱 쉽게 하는 등 반환절차를 다음과 같이 대폭 개선하였다.

우선 신청서 제출 없이 홈페이지에서 확인버튼 클릭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전에는 매 건마다 반환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시에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전에 팩스나 우편에 한정되었던 제출 수단이 다양화되었다.

그리고 수수료반환 청구만료일(반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년)이 1개월 남은 시점까지도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반환대상자에게는 수수료반환 신청기간 만료예고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잊지 않고 수수료를 반납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반환신청건의 처리진행 경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민원인은 굳이 담당자에게 문의하지 않고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특허기술 세일즈의 장, 본격적으로 열려

특허청(청장 하동만)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박광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3층에 '특허기술상설장터(KOREA PATENT MART)'를 설치하였다.

지난해 11월 말 새로 개관한 특허기술상설장터는 2백여평의 규모로 상설전시관, 영상관, 투자설명회장,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시관에는 한번에 50건의 기술을 전시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연간 7백여건을 소개할 계획이며 사업화로 성공한 특허기술은 제품전시와 함께 과정을 소개한다. 또한 전시를 원하는 특허권자나 실용신안권자는 방문하거나 인터넷 특허기술장터(www.patentmart.or.kr)를 통해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전시할 수 있고, 유망한 특허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설장터에 방문하여 전시기술을 관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술거래사와 상담할 수 있다.

특허기술상설장터는 내실 있는 거래지원을 위해 가상 입

체동작 영상물 상영, 특허기술 사업성 평가실시, 거래특허 홍보전단 제작배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특허기술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전시기술별로 동작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검색화면을 통해 볼 수 있게 하고, 기술별로 사업성을 평가하여 평가서를 제작 비치하며 특허개요, 제품의 특성, 사업성, 응용분야, 발명의 효과 등을 수록한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방문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허기술상설장터에 있는 모든 전시기술을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도 등록하여 서비스한다.

특허청은 이번 특허기술 거래·알선 및 투자유치를 위한 상설장터의 마련으로 개인 발명가, 중소기업, 벤처 기업,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사업화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기술상설장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02-3459-2845)로 문의하면 된다.

## '03년 변리사시험 최종 합격자 2백4명 발표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지난해 12월 13일 '제40회 변리사시험' 최종 합격자 2백4명을 발표하였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합격자수는 1999년 81명, 2000년 1백21명, 2001년 2백명, 2002년 2백2명이었다. 금년도 변리사시험 응시자의 합격 커트라인은 54.62점으로서 작년의 52.50점보다 약 2점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예의 수석은 66.25점을 얻은 전하운(남, 23세, 서울대 전기공학과)씨이고, 최연소 합격자는 전재몽(남, 20세, 서울대 전기공학과)씨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박주태(남, 44세, 서울대 금속공학과)씨로 밝혀졌다. 최종합격자를 전공별로 살펴보면 이공계 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96.6%인 1백97명이며 인문계가 3.4%(7명)를 차지해 작년보다 인문계 비중이 약 4% 낮아졌다. 분야별로는 전기·전자와 화학·

약품분야가 각각 약 1/4정도를 차지하고, 기계·금속분야가 약 20%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토목·건축·산업공학 등 기타 분야가 차지했다.

여성합격자는 71명(34.8%)으로 전년의 63명(31%)보다 증가했는데 이처럼 여성합격자가 많아진 것은 여성 고경력들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변리사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선호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합격자는 2004년 2월부터 1년간 실시되는 변리사실습과정을 이수하고 특허청에 변리사등록을 하게 되면 변리사로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2백4명의 합격자 명단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공계 대학, 발명교육의 요람 만든다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대학에서의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특허넷 시범대학 운영협의회(회장 박차철 동서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대전 특허청 국제특허연수부에서 '특허넷 시범대학 전담교수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허넷 시범대학 사업은 이공계 대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전문 지식을 산업재산권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 하여 지식혁명 시대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5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향후 대학발명 진흥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특허넷 시범대학간 정보교류의 촉진 및 상호 유기적인 특허협력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개최한 것으로 대학발명진흥을 위한 특허청장과의 간담회, 특허넷 시범대학 운영사례 발표, 특허학술발표, 특허넷 시범대학 운영협의회 의향후 운영방향 및 주제발표에 대한 분임토의 등이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교수진들은 대학교육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와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발명교육 모델 등 다양한 주제들을 거론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효율적인 교육방법론 등을 논의하는 등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